

<즐거운 나의 집>

■ 연출 및 지도 : 김은미

■ 출연자 : 김찬주, 김보연, 김수자, 박상용, 백서윤, 오세익, 최미자, 허형욱

■ 등장인물 : 윤아, 여사, 이웃, 엄마, 아빠, 집주인1,2,3,4,5, 술집사장1,2, 할아버지, 시어머니, 남편

■ 2021 입주날

2021년 입주날

음악 - 멜로망스 곡명 : 00-10s

윤아 들어오면서 집을 본다. 윤아 상자를 열어서 작은 짐들을 본다.

여사 : 사모님, 이제 정리 다 되셨어요.

윤아 : 네~ 감사합니다. 하루 종일. 계좌번호 부탁드립니다.

여사 : 사장님께서 입금해주셨더라구요.

윤아 : 아 그랬어요?

여사 : 네~ 부자되세요.

윤아 :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

윤아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둘러보고 밖을 내다본다.

무슨 생각을 하다가 '아, 맞다'하는 생각에 작은 상자를 본다. 사진을 들고 생각에 잠긴다.

음악. - 담다디 음악. 13초부터

어린 윤아는 정말 열심히 춤을 춘다.

동네 아줌마들 기지개 켜며, 청소하며 인사하며 들어오면서 웃고 인사하고 지나간다.

이웃 : 아이고 윤아가 아주 신바람이 났구나. 아침햇바람부터 춤바람이네~

윤아 : 완전 완전 신나요!!!!!! (춤추며 들어간다)

이웃 : 그나저나 아쉬워서 어떡해?

엄마 : 또 만나면 되지요.

이웃 : 여기보다 더 좋은데로 가는 거지?

엄마 : 더 좋다가 보다는 애 학교 때문에 가는 거죠 뭐. 이사 좀 그만 다니고 싶어요.

이웃 : (토닥이며) 윤아가 똥똥하니깐 학교 많은 데로 가야지

엄마 : 네 큰 학교로 간다니깐 좋아하더라구요.

이웃 : 아~~ 그 미추홀에 있는 학교 말하는 거지?

엄마 : (좋아하며) 네~~~

이웃 : 아니 윤아엄마 가면 동네심심해서 어떡하니..

엄마 : 그동안 감사했어요. 그래도 멀리 가는거 아니니까 들릴게요.

이웃 : 이런 하꼬방 같은데 뭐하러 다시 와~

윤아 : (자주 있었던 일에 격한 짜증스러움) 아이씨 짜증나!!

엄마, 동생이 또 내 숙제 망가뜨렸어.

엄마 : (이웃 여자 눈치보면서) 아유~~ 애는 동생이 그럴 수도 있지

윤아 : 벌써 몇 번째인데 선생님한테 혼난다니까.

이웃 : 아유 동생들은 늘 그렇게 말썽이다. 우리 윤아가 고생이 많다.

이제 이사가서 책상 사달라고 해.

이사 가는 날 -

음악. 아파트 32초부터in

신나게 짐***을 나르는 움직임--- 음악 F.O

윤아는 집을 돌아보며 실망에 가득찬다.

윤아 : 엄마 우리 왜 이사 온 거야? 방도 하나고, 더 좋은 집 맞아?

엄마 : 여기는 동네가 좋잖아.

윤아 : 방 하나에 크기도 똑같은데 뭐가 좋은 동네야.

엄마 : (계속 짐을 옮기다가 시무룩한 윤아를 보면서 숨차하며)

윤아야 이 동네 짜장면이 엄청 유명하데 ~ 이것만 정리하고 니가 좋아하는 짜장면 먹으러 가자.

두 사람 정지

다시 짐을 옮긴다. 음악 F. I (아빠 등장해서 같이 짐을 옮긴다)

집주인2 : 우리집 양반이 이명이 있어. 애들 우는 소리, 싸우는 소리에 귀가

아파죽겠대. 애 아빠도 노래도 못하면서 왜 그리 큰소리로 노랠하는거야?

윤아 : 우리 이사가야 해?

엄마 : (위로하듯이) 윤아야 이것만 정리하고 니가 좋아하는 짜장면 사줄게.

아빠 : (남의 일인듯)그러니까 처음부터 애들이 있다고 말을 했어야지 왜 거짓말을 해?
(나가버린다.)

다른 집주인 등장
음악 F. I

집주인1 : 정말 애들이 왜 이렇게 유별나!!!! 우리 애는 고3이라구, 고3! 당장 방빼요, 알
았죠?

윤아와 엄마 머리를 조아린다.

엄마 : (고개숙인 윤아를 위로하듯) 짜장면 사줄게

집주인3 : 우리 시아버지가 조용히 지내고 싶대. 그 집 식구들이 너무하긴 해. 나도 자기네
같은 집 처음 봤어.

엄마와 윤아 다시 이사짐을 들고 옮긴다.

힘 빠진 윤아.

엄마: 후.....윤아야 이것만 정리하고 니가 좋아하는 짜장면 사줄게.

음악
아이들 소음 녹음

윤아 : (상당히 화를 내며) 야!!! 너네 조용히 안해 !!!
(씩씩거리며 나간다. 아이들 울음소리)

엄마 : (안절부절하며) 윤아야~~~~~

음악 아파트 크게

엄마 : 월세는 못 올려드려도 제가 부엌일도 봐드리고 소일거리도 좀 더 해드릴게요.

윤아 : (울듯) 우리 또 이사 가는거야?

아빠 밖에서 노래하면서

윤아 : 아빠 우리 또 이사간대.

엄마 : 운다.

아빠 : 그깟 돈 몇푼 때문에? (집주인 나간 쪽으로) 있는 것들이 더 한다더니! 에라이~ 잘
먹고 잘살아랏!

엄마 : 그만해요 제발.

아빠 : 안 그래도 집 구했어!!

음악 당신도 울고 있네요.

■ 이사

엄마와 윤아는 짐 들고 두리번

집주인5 : 안녕하세요. 어서와요.

엄마 : 네, 아유 사모님(호칭 체크)

집주인5 : 잘 지내봐요. 우리는 애들이 없어서 애들 많으니 좋네요. 애가 큰애구나.

윤아: 안녕하세요!!!!!!

집주인5 : 어머, 세상에 인사성도 밝고, 이쁘네

딸 : 감사합니다.

집주인5 : 어머 공부를 잘해서인가? 아주 씩씩하다.

엄마 : 아유, 감사합니다.

집주인5 : 언제 한번 놀러와요. 얼른 정리해요.

엄마 : 네 (짐 내리면서) 이것만 정리하고 니가 좋아하는 짜장면 사줄게.

윤아 : (조금 있다가 단호한 결심으로) 짜장면, 안먹어!

엄마 : (당황해서) 뭐?

딸 : 엄마 치킨 시켜 먹어 볼까? (노래) 정말 맛있는 치킨이 찾아왔어요.~그 최양락 치킨

엄마 : 아빠도 동생들도 짜장면 좋아하는데, 짜장면이 낯지 않을까?

(다급하게) 그리고 그 최양락 치킨은 비싸기만 하고 시장치킨이 더 맛있대? 선희엄마가 그러던데?

■ 독백

딸 : 전에는 짜장면 먹고 싶어서 이사 가는 게 좋았다. 하지만, 이제는 이사 가는 게 정말 지긋지긋하다. 덩달아 나는 짜장면이 정말 싫다.

딸이 뒤돌아서 무언가를 찾다가, 찢어진 노트를 들고

윤아 : 씹씹거리며 소리를 지른다.

엄마 : (다급하고 놀라서) 애가 미쳤나봐. 조용히 안 해?

딸 : 내 숙제 또 찢었다구요. 진짜 ...

엄마 : 그러니까 잘 뒀어야지. 누나가 참아야지.

윤아 : 왜 맨날 나만 참아요? 그리고, 어디다 잘 두라는 거예요? 이 집에 내방이 있어요?

엄마 : 애가 왜 이래?

윤아 : 내 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디가 잘 두느냐구요!!(퇴장)

엄마 : (들어가는 방향으로)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.

윤아 : (들어가서 비명) 야 니들 내 책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?

동생들 녹음 소리 "싫어" "하지마"

엄마 : 이 녀석들 조용히 못해!!!

집주인5 : 저기 윤아 엄마~~~

엄마 : 네~

집주인5 : 내가 이런 말하는 거 속상할 수도 있지만, 한 두번도 아니고

엄마 : 머리가 아프시죠? 아유, 죄송해요.

집주인5 : 그래 머리가 아프고 그러다가 막~~ 귀가 울려. 지금 밤이잖아. 자는 시간이잖아.

아빠 : (노래하면서 등장) 안녕들 하십니까~~~ 아름다운 밤입니다.하하하하하하하

엄마 : (눈치보며) 당신 빨리 들어가요.

집주인5 : 애들이 아버지 닮았나봐. 나 머리가 아파서 들어가요.

아빠 : 우리 아이들이 저를 닮아서 아주 활발합니다. 사모님!!!!안녕히 주무십시오!!!!

집주인 쌍 하고 들어간다.

엄마 : 제발 조용히 좀 해요.

아빠 : 애들아아아악~~~ 아버지 왔다 다 일어나 이놈들

엄마 : 눈치도 없지 애들이 맨날 싸워대서 집주인이 눈치를 줘요. 이러다가 또 이사 가게 될까봐 걱정되 죽겠다구요.

아빠 : 이사 ? 더 좋은 데로 이사가자!!!!!!하하하하하하하하하

엄마 : 이 양반이!!! 진짜!! 이사 얘기가 나왔으니 따져봅시다. 적금을 부어도 모자를 판에 맨날 술이 떡이 되게 먹어야 겠냐구요!

아빠 : 오늘은 월급날!!!!!!

엄마 : 으이구!!!!!!

아빠 : (주머니를 뒤적이면서) 콜드..크림이~~아니, 콜드크림이 어디갔냐....

엄마 : (좋지만 걱정스러운) 콜드크림을 샀어요? 당신도 참 주책이야.

아빠 : 비싸도 우리 마누라 이빠지라고 샀지!!!! 근데, 어디갔지?

엄마와 아빠는 콜드크림을 찾느라고 분주하다.

술집사장1 : 덕출씨~~~ 아우, 내가 진짜!!! 오늘 월급날이라고 외상 다 갚는다고 했잖아. 왜 약속을 안 지켜서 집까지 오게 해? 빨리줘요.

아빠 : 아니 어디와서 행패야?!

술집사장2 : 나도 계산해줘요. 덕출씨~어머~ 와이프까지 있네~ (와이프 보고)왜 서로 불

편하네 (술집사장1을 보고)어머 언니네도 외상?

엄마 :(남편을 보면서)아이구 진상!

술집사장1 : 그리고 이 콜드크림으로 대충 떼울 생각하지마. 자~ 받으슈. 계산합시다.

술집사장2 : 덕출씨 나도 콜드크림 많아. 와이프나 하나 사줘. (와이프에게) 자기야, 이거 써.

아빠 : 계산 다 했잖아. 누굴 술주정뱅이로 아나!!!

술집사장1 : 덕출씨, 우리집에서 나가서 이 집으로 갔잖아. 거기는 계산 다 한줄 알고 쫓아왔지.

술집사장2 : 우리는 너무 많아서 다음달까지 가야 될 거 같애. 와이프있으니까 내가 1절만 하는데 다 계산 안하면, 또 올 거야.

술집사장1 : 난 내일도 올게. (와이프에게) 언니 미안해. 나도 먹고 살아야지. 내일봐요. 가자.

둘이 나가면서

술집사장끼리

"나는 요기 뒷집도 가야 해", "나는 요기 앞집으로 가"

"아유, 직접 수금하다니" "피곤해"

엄마 : 우이구 이 화상아!! 콜드크림 사서 저 여자 줬냐?(콜드크림 던지며) 어? 월급받아서, 허튼 짓거리나 하고!! (술집년들한테 다 퍼줘?)!! 당신이 인간이야!!! 애들 방 하나씩 줄 집으로 이사 갈 생각은 안 해? 당신이 가장이야!!!!

아빠 : 아니 이 여편네가 미쳤나?

엄마 : 미쳤다. 너 같으면 안 미치겠어?

아빠 : 너?

엄마 : 그래 너 !!!!

아빠 : 에잇 누굴 술주정뱅이로 아나!(엄마밀치고 나간다.)

엄마 주저 앉는다.

음악 당신도 울고있네요

시어머니 : (속사포처럼)애, 너는 아범 바가지를 그렇게 굶어야 겠니? 등골 빠지게 일하느라고 밖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니? 너야 집에 있지만 애비는 바깥에서 얼마나~~고생하냐구. 남자들 술 한잔 먹는걸 가지고 바가지를 굶으면 더 남자가 밖으로 도는 거야!

엄마 : 엉엉 운다.

시어머니 : 어머, 애! 내가 뭘 어쨌다고 우니? 남들이 보면 내가 너 꼬집은 줄 알겠어.

음악 타타타

엄마 운다. 시어머니 어이없어하며 나간다.

엄마의 모습을 어린윤아와 집주인이 양쪽 끝에서 바라본다.

엄마의 자리가 바뀐다.

윤아 : 윤이 좋은건지 나쁜건지 모르겠지만, 우리집 사정을 뻔히 아는 집주인을 만나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다. 나는 공부방은 없었지만, 방의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책상을 얻게 되었고, 그 집에서 나는 꿈을 꾸고 공부를 했다.

이웃들과 수다장면.

동네 : 커피 타서 같이 먹게. 가요.

여자가 보온병과 밥그릇 같은 모양의 그릇을 갖고 와서 커피를 나눈다.

여자 : 윤아 엄마는 부업을 많이 하나봐.

언니 : 자~엄청 달고 맛있어. 너무 좋다. 밤에 커피마셨더니 텔레비 끝날 때까지 봐도 안 피곤하다.

여자 : 아니, 언니 칼라 텔레비 샀어?

언니 : 응 하나 샀어. 이틀 전에 호호호

동네 : 아유 좋겠다.

이웃1 : 우리 언니 또 부부싸움했구나?

언니 : 뭐라구?

이웃1: 전에도 한판 하고 콜드크림 샀다고 자랑했고, 전에 또 동네시끄럽게 싸우고나서 코끼리 밥숯샀잖아.

언니 : 애 너는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니?

동네 : 에이, 조용히 해. 왜 그래 커피 맛 떨어지게.

여자 : 아니 너도 콜드크림 샀다며~ 언니 애가 언니가 부러워서 그래.

언니 : 너는 콜드크림 말고 머리 좋아지는 약을 사라. 코끼리 밥숯은 원래 있었고 저번에는 전자렌지 샀거든. 머리 나쁘면 평생 고생이라더라.

이웃1 : 아유 언니도 콜드크림만 발랐지, 속도 좁다.

언니 : 애, 그런 말 듣고 누가 참아!!

이웃1 : 내가 없는 말 했어? 말해봐요. 언니들

이웃1 : 허~ 언니는 저 언니가 이것 저것 받더니 저 언니 편드는 거야?

여자 : 아니, 말 좀 곱게 하라는 거지, 그리고 뭘 받았다는 거야?

언니 : 애미가 말을 싸가지 없이 하니까 애들도 싸가지 없다고 소문나지.

이웃1 : 이 언니들 진짜. 우리 애들이 왜? 누가 그런 소문을 내?

동네: 그만들 해. 윤아엄마 놀라서 자빠지겠어.

여자들 씹씩 거린다.

엄마 : (멋지게) 아유. 커피가 너무 맛있네요. (침묵) 그런데.... 그 콜드크림은 얼마예요?

여자 : 자기 하나 사게?

이웃1 : (말 자르며) 근데 언니 참 웃긴다. 우리 애들이 뭐?

여자 : 아이 참, 그만하라고. 난 니애들 얘기 못들었어.

이웃1 : 저 언니가 우리애들 애길 했잖아.

언니 : 야!!! ?(소매를 걷어 붙인다.)

엄마 : (급하게) 우리 애는 이번에 반에서 1등을 했어요. (다들 침묵) (눈치보며) 저는 할 얘기가 자식 얘기 밖에 할게 없어서.....

여자 : 부럽다. 아유 자식이 공부 잘하는 게 최고지 뭐.

언니 : (멋쩍게 그만두며)윤아엄마, 이거 한번 봐봐. (가방보따리 주며)우리 딸이 옷을 깨끗하게 입어서 주려고 챙겨왔어.

엄마 : 어머, (보면서) 너무 감사해요.

언니 : 나름 다 메이커야.

할아버지 : 나 버리고 여기서들 뭐하는 거야. 나쁜년! 나 구박하고 버리고 밥도 굶기고

언니 : 아유 아버님 아직 식사 때도 안되었어요 가요 가요. (같이 퇴장)

여자 : 저 언니 치매 시부모 모시니까 스트레스 많아.

이웃1 : 헨 옷 주면서 생색 내는거봐. 진짜 저 언니 별로야. 성격은 언니들이 짱이지.

동네 : (짐 챙겨나가면서) 으이구 가요.

다들 들어가고 윤아 등장. 엄마 신나서 윤아에게 다가간다.

엄마 : (한껏 들떠서) 애 이거 메이커래? 너무 이쁘지 않니?

윤아 탐탁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옷을 여기저기 본다.

윤아 : 엄마, 나 새 옷 사주면 안돼?

엄마 : 애, 이건 메이커라 새 옷보다 좋다.

윤아 : 나처럼 옷 없는 애가 없다구.

엄마 : 그럼 넌 그동안 벗고 다녔어?

그리고 솔직히 좋은 집으로 이사가려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, 아껴야지. 엄마가...

윤아 : (말 끊고 퇴장) 몰라!!!

엄마 : 너 진짜 왜그래? (따라 들어간다.)

둘 다 퇴장

음악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주는 음악

큰 윤아 : 나의 엄마는 늘 허리띠를 졸라 메고 살았고, 아빠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사셨다.
그렇게 ... 나는 고등학생이 되었다.

엄마 집안일하다가 티비(신문) 보는 아버지께

엄마 : 여보, 우리 윤아 아무래도 집안사정으로 고등학교를 정한게 그렇게 아쉽고 나중에
재가 한이 될까 걱정이에요

둘이 이야기를 나눈다.

뒤에서 윤아가 듣게 되는 장면

아빠 : 됐어. 집안 형편을 생각해야지.막말로 여자가 대학을 나와야만 돈을 버는 것도 아
니고 오히려 고졸이 취업도 잘 된다구.

엄마 : 아니, 요즘 세상에 무슨 여자 남자를 따져?그리고 재가 공부를 좀 잘했어?

아빠 : 그러니까, 윤아는 공부도 잘해서 대학 안가도 부르는데 많아. 남동생이 둘이나 있
는데 좋은 회사 취직해서 동생들 뒷바라지하면 만이로서 체면도 서고더 좋은 거 아니야?

엄마 : 당신은 참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부모가 뒷바라지를 해야지

아빠 : 여자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시집가기도 힘들어.

엄마 : 여자가 잘나면 시집도 잘가지 무슨 소리예요? 우리 윤아보다 공부못한애들이 대학
간다어쩐다 들으니 나도 속이 아프던데!

아빠 : 잔소리 말아. 진짜 좋은 남자 만났다고 치자. 우리집이 탐탁하겠냐구? 당신이 사회
생활을 해봤어? 동네에서 푼돈이나 벌면서 무슨 잘난 척이야.

엄마 : 개가 대학은 가야 좀 집도 있고 편하게 살지 싶은데..

아빠 : 대학가면 집이 딱 생겨?

엄마 : 그럼요~ 선희네, 미영이네, 선미네 개네 아빠들은 다 대학나왔잖아요!

아빠 : 그럼 내가 대학을 못나와서 집이 없다는 거야~!

엄마 : 당신이 여자 대학가도 별거 없다고 세상모르는 소릴하니까 내가 속이 터지지!!

아빠: 나도 다 알아봤어 이 사람아!! 윤아는 공부도 잘하고 인천 최고의 여상이라서 은행
도 취직 잘되고 대기업에 경리도 될 수 있다고 이 사람아!! 동네에서 남집안일이나 해주
는 데 뭘 알아!!!

엄마 :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사는데!

윤아 : (서둘러 인기척을 내며) 아빠엄마!!

엄마 : (당황하며) 왔니?

윤아 : 저 좋은 은행에서 면접보러 오라고 했어요.

아빠 : (거들먹 거리며) 잘했다. 거봐~ 누가 우리딸을~ 잘됐어!!

엄마 : 그래 돈 모아서 니가 공부 더 하고 싶으면 더 해.

아빠 : 뭘 헛소리야?

윤아 : 제가 알아서 할게요~~

아빠 : 선희네 아빠가 지금 요시간에 집에 있겠다. 윤아야 어디 은행이라고?

윤아 : 면접만 보는 거예요. 한 3군데 정도.

아빠 : 다 ~ 좋은 은행이지? 알겠어. 여보 우리딸 때문에 나 한잔만 하고 올게~

엄마는 조용히 어깨를 쓸어준다.

어른 윤아 : 그렇게 은행에 취직을 해서 (웃음) 엄마처럼 허리띠를 졸라 메고 열심히 저금을 했다.

음악

남자 : 저 윤아씨... 저는 윤아씨가 좋아유.

윤아 : 저도 00씨가 좋긴한데, 연애할 여유가 없어요.

남자 : 연애는 마음으로 하는거예요.

윤아 : 미안해요. 저는 맏딸이어서, 부모님에 작은 집이라도 사드리고 싶어요.

남자 : 사 드리면 되쥬. 뭐가 문제래유?

윤아 : 연애하려면 옷도 사입고, 화장도 하고, 커피도 마시고.....아무튼 그런 여유가 없어요.

남자 : 그런거 지가 해줄게유. 자~ (선물상자 준다).

윤아 : (선물보면서 놀라고 좋다 그러다가 정생) 너무 고맙고 좋은 사람인거 알지만 ...미안해요.

남자 : 일단 이거 받고 밥은 내가 사줄테니 (쪽지 주며)여기로 나와유. 올때까지 기다려유.
타블로 3

음악 새들처럼

아빠 엄마 : 이게 무슨 경사냐. 이게 무슨 부귀영화냐

아빠 : 자식 복이 이런 거구나. 아이구 윤아야.

윤아 : 아우 그만들 하시고 집이나 봐요.

셋을 눈이 휘둥그레 하면서 집을 본다. 3커트 같은 곳 보기

윤아 : 좀 작지만,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되네?

아빠 : 무슨 말이냐? 개네들 곧 군대 가고, 장가가야지. 나한테는 대궐이다.

엄마 : 그래 작든 크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?

내 집. 내집. 남 눈치 안보고 두다리 쪽 뺀고 사는 내집.(감정이 폭발쳐서 분위기업을 위해 눈물을 감추며)청소하려면 등이 휘겠다.

부모는 윤아의 손을 잡는다.

2021 노래

윤아의 새로 이산온 집

윤아의 딸 : 엄마!!!!!!! 우리집 완전 좋아~~

윤아 : (웃으며) 우리딸 왔어?

남편 : 당신 피곤하지?

윤아 : 아니, 피곤하긴요~ 포장이사라 진짜 편해.

남편 : 거봐, 내말 듣길 잘했지? 당신은 당신 몸만 생각해. 일도 하는데

윤아 : 고마워.

윤아의 부모님 들어오신다.

엄마 : 아유 우리딸~~

아빠 : 축하한다.

남편 : 아버님이 이사한날은 다 같이 짜장면 먹어야 한 대서 오시라고 했지.

엄마 : 이 서방 애는 짜장면 싫어해. 당신은 참~~~!

아빠 : 왜 어릴 때 이사가는 날마다 짜장면 먹고 얼마나 좋아했는데.

엄마 : 이사 갈 때마다 먹어서 싫어하는거야. 당신이야 뭐, 고량주 드시느라 기억에 없겠지.

아빠 : 참나...

윤아 : 엄마~~ 나 이제 짜장면 좋아해.

엄마 : 니가 짜장면에 그 트라으니인지 트라우마가 없어진거지? (윤아를 바라보며급 눈물)
니 말 들으니까 또 눈물이 나다.

아빠 : 짜장면에 눈물이 나? 나이먹었구만.

엄마 : 니가 거기 버스정류장에서 앞에서 짜장면먹기 싫다고 목놓아 운거.

어릴 때 동생들이 숙제 망칠까봐 이불밑에 숙제 넣고 잠든 모습. 친구들이랑 맨날 헤어진다고 이사전날부터 울던 거... 다 생각나네, 아이고. (눈물)

윤아 : 엄마 좋은 날 왜 이래!!

남편 : 하하하하 장모님~~~~~ 오늘은 짜장면 말고 탕수육을 드시면 되지요.!!!

아빠 : 아 우리 이서방 말이 맞네. 다들 궁상 떨지 말고 탕수육 먹어.

윤아딸 : 나 짜장면 !!!!

“자 주문합니다”

다들 외출 준비하다가 어느 곳을 본다.

윤아 : 엄마,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설 거라고 상상이나 했어?

엄마 : 그렇게 말이다. 정말 저기서서 늘 내가 신세한탄을 했던게 생각난다. 저기 산 아래

윤아딸 : 저기가 산이 있어요?

엄마 : 저 뒤에 산이 보이지? 아파트 뒤에

윤아딸 : 와, 진짜 저기 산이 있네!

엄마 : 그래 저기서 니 엄마가 태어났어. 그 옆은 염전이구

윤아딸 : 염전이 뭐지?

남편 : 학교에서 염전 안 배웠어? 소금나오는데

윤아딸 : 아~ 아니 저기가 염전이었다고? 소금은 지금도 먹는데 왜 다 없어졌어?

아빠 : 개발이다 뭐다 죄다 아파트 들어서서 그렇지. 옛날에 있었던 거 다 없어졌지.

윤아 : 옛날 우리 엄마 설움도 없어졌지.

엄마 : 고생했다. 그 놈에 집이 뭐라고.

윤아 : 진짜.... 엄마, 집이 뭘까?

윤아딸 : 집은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사는데지 할머니랑 엄마 진짜 몰라?

모두 귀여워 하며 웃는다.

윤아 : 이제 엄마도 나도 다 집이 있네 즐거운 나의 집!

윤아딸 : 즐거운 나의 집!!!! 노래한다.

띵동소리

1. 재개발 동의서 - 햇살

2. 친구 방문 - 파랑새

3. 배달 음식이 와서 다같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.

가족들만 기쁘고 1, 2번 방문자들은 아니다. 1번은 자기 서류를 보느라고 정신이 없고, 2번 방문자는 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.